

한국 국경사에서 韓百謙 『東國地理誌』의 위치

윤한택(인하대학교 고조선연구소)

한국연구재단 KCI 문헌 유사도 검사 결과

번호	등록일	검사명	최고유사율	처리현황	처리상태
----	-----	-----	-------	------	------

1	2024/02/15	미입력	2%	1 / 1	검사완료
---	------------	-----	----	-------	------

국문초록

한백겸 『東國地理誌』 역주를 바탕으로 그의 국경 인식을 검토하면, 그것을 관통하는 기본 전제는 동국의 ‘남쪽은 남쪽대로, 북쪽은 북쪽대로(南自南, 北自北)’, 나아가 ‘동국은 동국대로(東國自東國)’로 요약되는 통칭 ‘東國獨自史論’으로 명명할 수 있다. 그리고 그 지리적 경계는 대체로 대륙과 한반도로 설정되고 있다. 그것은 이전 연구자들이 대부분 공감하듯이, 왜란이란 국난을 경험하고 호란을 앞두고 있던 당시 국가 위기 상황에 대한 성찰의 결과인 동국의 독자적인 정체성 확립이란 바람직한 문제 설정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런 지리적 한정은 도리어 그에 부합하는 기록만을 취사선택하고 대륙 요동 관련 기록은 무시하거나 한반도의 것으로 둔갑시키거나 예외적인 것으로 취급하는 이중적인 결과를 초래하였다. 그리고 그런 결과는 당시 그가 소속되어 있던 양반 집권층의 계급적 입장이 반영되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따라서 이전 연구자들의 ‘기존 문헌의 내용을 믿고 따르는 풍조를 비판하면서 객관적이고 실증적인 논리로 기존의 설을 분석하여 시비를 가리고자 했다’는 평가와는 상당한 거리가 있음이 확인되었다. 그것은 형식상 이전의 역사서와 다른 역사지리학이란 새로운 경향의 문을 연 것은 사실이나, ‘述而不作’의 춘추사관과도 ‘실학’과도 무관한 것이었다. 그리고 그것은 후대 연구자들의 소모적인 논쟁의 문을 연 한계를 보였는데, 대표적인 것으로 한사군의 한반도설, 신라 통합 이후의 봉강의 향방, 고려 동계의 궤적, 고려 북계의 경과에 관한 것을 지적할 수 있다.

주제어

동국독자사론, 역사지리학, 춘추사관, 실학

목차

- I. 연구사
- II. 자료 선택의 방향
- III. 한국 국경사에서의 위치
- 부록. 한백겸 『동국지리지』 역주

I. 연구사

우주는 각자의 특이성을 가진 삼라만상이 경계를 이루며 서로 관계하고 있다. 그 구성인자의 하나인 인간은 각 국가 단위로 경계를 이루며 우주와 관계를 맺는다. 그리고 국가의 경계인 국경은 일차적으로 그 지리로부터 출발하며, 그 변화 과정에서 역사성을 갖는다.

필자는 조선총독부 『조선사』의 고려사 부분을 검토하면서 고려 북계인 ‘鴨綠江’과 ‘鴨滌江’에 주목하고, 그 국경을 재검토하여, 그 실체가 ‘遼河’임을 밝혔다.¹⁾ 그리고 이어서 현재의 국정교과서처럼 ‘압록강과 원산만’으로 인식하는 근거가 된 다산의 『我邦疆域考』 고려 서북계 부분을 역주하였다.²⁾ 이후 이런 인식의 출발점을 추적하면서, 韓百謙 『東國地理誌』에 주목하게 되었고, 이 저작이 고려 국경뿐 아니라 현 대한민국 헌법상의 국경 인식에도 영향을 주었음을 확인하였다.

한국 국경사에서 이 저작이 갖는 의미는 적지 않은데, 이에 비해 그 연구 성과는 그리 많지 않다. 직접적으로 『東國地理誌』를 대상으로 한 연구자는 정구복, 윤희면, 원유한, 김경추에 불과하고³⁾, 韓百謙 관련하여 간접적으로 언급한 연구자로 정종구, 조성을, 고영진, 이애희, 방동인, 지금완, 이인철 등이 있다.⁴⁾ 여기서는 직접적인 연구

1) 윤한택, 『고려국경에서 평화시대를 묻는다 - 고려 국경 연구』, (서울: 더 플랜, 2018)

2) 윤한택, 『다산의 고려서북계 인식』, (서울: 경인문화사, 2018)

3) 윤희면, 한백겸의 학문과 《동국지리지》 저술동기, 진단학보 제 63호, 진단학회, (1987), p153~169 ; 윤희면, 「한백겸의 동국지리지」, 『역사학보』 93, 역사학회, (1982.3), p21~42

원유한, 한백겸의 동국지리지 성립 배경과 성격, 국사관논총 93, 국사편찬위원회, (2000), p185~216 ; 원유한, 한백겸의 동국지리지 성립 배경과 성격, 윤곡학회연구논총 1, 윤곡학회, (2005), p133~178,

정구복, 「한백겸의 동국지리지에 대한 일고 - 역사지리학파의 성립을 중심으로-」, 『전북사학』2, 전북대학교 사학회, (1978), p39~84 ; 정구복, 한백겸의 사학과 그 영향, 진단학보 63호, (1987), p153~169

김경추, 한백겸의 동국지리지에 관한 연구, 국토지리학회지 37권 4호, (2003), p399~407

4) 정종구, 구암 한백겸, 실학논총, 전남대학교 호남문화연구소, (1975), p311~317

조성을, 「『我邦疆域考』에 나타난 丁若鏞의 歷史認識」, 『奎章閣』15, (1992), p63~92

고영진, 한백겸, 『한국의 역사가와 역사학 상』, (서울: 창작과 비평사), (1994), p175~188

이애희, 구암 한백겸의 실학사상, 강원문화연구 제 17집, 강원대학교 강원문화연구소, (1998), p71~87

방동인, 구암 한백겸의 실학사상, 윤곡학회연구논총1, 윤곡학회, (2005), p51~74

지금완, 한백겸의 『久菴遺稿』 역주,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4.12)

성과를 중심으로 그 연구사를 개관하기로 한다. 이들 제반 논문은 대개 인물, 내용, 동기, 성격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 논지도 큰 틀에서 대개 일치하며 부분적인 이견과 나름의 부수적인 의견이 덧붙은 정도의 차이가 있다.⁵⁾ 국경이란 주제와 관련하여 이 저작이 갖는 역사적 의미를 뭉뚱그려 그 역사지리학의 관점, 실학의 관점, 정체성의 관점으로 분류하여 정리하기로 한다.

1. ‘역사지리학’의 관점

정구복은 이 저서에 역사서와 지리서의 양면성이 다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당시의 지리적인 관심 문제를 다루는 지리학과는 구분되어야 하므로 그 성격을 역사지리학으로 규정할 수 있으며, 기존의 편년체 역사와 크게 다른 새로운 역사서술 체제라고 하였다. 그 근거로 먼저 시간을 축으로 하여 역사의 변화를 추적하던 이전의 사서와 달리 지역을 바탕으로 하여 시대적인 변화를 추적하고 있는 점을 들었다. 또 왕위의 계승을 포함한 정치적 사건, 관제, 인물의 성쇠 등이 중요한 중심개념으로 파악된 기존의 사서와 달리 국가의 성쇠, 국가 강역의 변천, 국도의 이전 등이 큰 관심이 되고 있는 점을 들었다.⁶⁾

윤희면도 이 저서는 지리서일 것이라는 인상을 주지만 조선 초에 편찬된 『世宗實錄地理志』, 『東國輿地勝覽』 등과는 다른 성격을 지나고 있다고 하였다. 그 내용을 시대별로 정리하여 표로 보이면서, 역사적인 것에 관심을 두고 서술된 것이라고 해도, 특히 국가 강역의 변동, 강역 내 지역의 변화를 주된 문제로 삼고, 현재의 위치를 알아 보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에서 종래의 역사 서술과 다른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즉 지리지의 성격과 역사서의 성격을 함께 지닌 역사지리서라고 할 수 있다고 하였다.⁷⁾

2. ‘실학’의 관점

정구복은 또한 이전의 사서가 정치적 교훈을 얻으려는 목적의식을 갖고 서술된 결과 그 사론이 당위성을 논하는 윤리적인 주관적 가치평가를 주로 한 것과 달리, 이 저서는 역사적 사실의 진부를 가리려는 학문적인 목적의식을 갖고 서술하고 있다고 하였다. 이에 따라서 그 사론도 거의 모두가 객관적인 진부의 논증을 하는 데 쓰여지고 있고 이로 인하여 서술보다 고증이 더욱 중요시되었으며, 이런 태도는 이후 후계

이인철, 「고려 윤관이 개척한 동북9성의 위치 연구」, 『압록과 고려의 복계』, 2017, p83~121

5) 김경추의 논문은 그 서론에서 언급하였듯이, 정구복, 윤희면, 원유한 논문을 단순히 비교·검토한 것이므로, 따로 연구사의 제목에 포함하지 않았다. 또 韓百謙 『東國地理誌』의 한 부분만을 다룬 글로 최연주, 「실학자 한백겸의 고구려령역에 대한 견해분석」, 『김일성종합대학학보(역사, 법률)』, 주체106(2017)년 제63권 제4호, p76~80과, 「《동국지리지》에 반영된 실학자 한백겸의 삼한에 대한 견해분석」, 『김일성종합대학학보(역사, 법률)』, 주체(2016)년 제32권 제1호, p58~61이 있다. 이 글은 이전 연구 성과 중 실학자란 전체 위에서 그 고구려 강토에 대한 인식을 강조·확대해석하여 정권 정통성과 관련시킨 논평 성격의 글이다. 전면적 실증 분석 논문이 아니므로 전모가 드러날 때까지 일단 견해에 대한 판단을 유보하기로 한다.

6) 정구복, 전계논문 p60 ~ 61. 이하 인용 논문의 쪽수는 저자의 첫 논문을 준거로 함.

7) 윤희면, 전계논문 p22 ~ 23, p30

자들에게 계승되어 실학자에까지 이르렀다고 하였다. 또한 이리하여 전통사학을 근대 사학에 연결시킬 수 있는 단계를 마련한 것으로서 한국 사학사에서 최초의 과학적인 역사연구 업적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고 하였다.⁸⁾

윤희면은 이 저서에서 다양한 고증을 통하여 위치를 비정하고 있지만 결론을 내리는 데는 상당히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음을 주목하고 있다. 종래의 설을 그대로 따르는 것이 아니라 자기 나름대로의 객관적인 고증을 통해 비판적인 안목에서 서술하고 있다고 하였다.⁹⁾

원유한은 이 저서의 역사적 성격으로 첫째¹⁰⁾, 투철한 비판 의식을 들 수 있는데, 그 내용으로 보면, 3한 4군의 위치와 3국의 서술 순서를 수정 제시한 것 등을 들 수 있다고 하였다. 셋째로 실용성 내지 공리성이 중시되었다는 사실을 들었다. 그것은 국력 내지 국세를 인적·물적 자원을 포용하는 강역의 크기와 비례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왕도주의적 지리관을 비판하고 강역의 크기는 국세와 비례한다는 지리관과 대응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넷째로 문제를 분석 고찰함에 있어 실증적 방법을 중시하는 실증의식을 지적할 수 있다고 하였다. 다섯째, 역사적 평가 인식 태도에서 엿보이는 객관·합리성을 들 수 있다고 하였다.¹¹⁾

3. ‘정체성’의 관점

정구복은 이 저서의 서술 동기를 17세기 초의 문화적, 정치적 분위기에서 찾았다. 먼저 16세기에는 지방 출신의 사림이 중앙에 진출하여 정권을 다투었고 사화로 인하여 정쟁에서 패배하여 고향에 돌아와서는 성리학 연구나 제자 육성에 몰두하고 지방에 서원을 건립하는 문화의 주체가 되었다고 하였다. 그들은 자기 지방의 읍지를 자신들이 편찬하기도 하였고, 이들을 의식한 지방 수령이 그 지방 읍지를 편찬하였는데, 이 때의 의식은 자기 지방의 역사와 문화적 수준을 돋보이려는 뜻이 있었음에 유의해야 한다고 하였다. 또 왜란의 충격으로 초래된 변방 문제는 중앙 정치인들의 지방 사정에 대한 관심을 고조시켰으며, 경상도·전라도·함경도·평안도의 변방은 물론 내륙 지방 전국이 왜와 싸우는 전선이 되자 지방의 요새지가 어디라는 것은 지식인이 알아야 할 지식이었고, 전쟁을 통한 인적·물적인 많은 이동은 지리에 대한 많은 관심을 갖게 하였다고 하였다.¹²⁾

윤희면은 이 저서의 서술 동기를 먼저 임진란을 겪고 난 뒤에 왜 부단히 외적의 침입을 받게 되었는가 하는 역사적 성찰에서 찾았다. 그러면서도 현실적인 대상이 된 것은 당시 상황으로 보아 왜가 아니고 만주 지역에서 새롭게 흥기하여 위협으로 등장하게 된 후금(호)이었을 것이라고 하였다. 곧 현실을 이해하려는, 또한 외적을 방비하기 위한 역사적, 민족적 성찰이 그 동기라고 하였다.¹³⁾

8) 정구복, 전제논문 p61

9) 윤희면, 전제논문 p33, p37

10) 역사적 성격에 대한 원유한의 서술 순서이다. 이하 같다.

11) 원유한, 전제논문 p209 ~

12) 정구복, 전제논문 p51 ~ 52

13) 윤희면, 전제논문 p39, p41

원유한은 이 저서의 역사적 성격과 관련하여 둘째로 인식 대상을 선택하는데 있어 역사적 현실성을 중요하게 생각했다는 점을 들었다. 특히 왜란으로 국가 정치는 문란해지고 경제는 파탄에 직면했으며 전체 국민의 사기는 떨어졌고, 더구나 전란 후 만주 지방에서 급성장한 여진 세력으로부터 침략의 위협까지 받게 되는 위기 상황을 맞게 된 것이라고 하였다. 여섯째, 추구한 목표가 변화수용적 진보성과 민족주의 지향적 주체성이었다는 점을 들었다.¹⁴⁾

이렇게 『東國地理誌』를 직접 분석한 논문에서 이상의 세 가지 관점에 대한 긍정적 공감대가 이루어져 있는 듯하지만, 한편에서는 그런 인식을 보장하지 못하는 사료 취급에 대한 불안한 언급도 곳곳에서 보인다.

정구복이 성격을 논하는 항목에서 “그 서술 내용이 지리적인 문제가 많은 것은 사실이나”라고도 하고,¹⁵⁾ “비록 엄정한 사료 비판을 못하고 있으며 사료 수집의 범위가 넓지 못한 점에서 문제점이 있기는 하나”라고도 하였다.¹⁶⁾ 또 결론에서, “연구 방법에 있어서 객관성이 추구되고 논증적인 연구 방법이 행하여졌으나 아직 엄정한 사료 비판이 이루어지지 못함으로써 아직 많은 한계성을 가지고 있었다. 그 구체적인 예로서는 부족국가를 다루는데 있어서 삼국지보다 후한서에 크게 의존하였으며 사료의 수집에 있어서도 아무 검토 없이 마구 인용한 점, 인용에서 빠진 사료가 많은 점은 역사 지리학의 한계점이었다. 그 뿐만 아니라 역사지리학의 한계점은 역사에서의 지명 고증의 영역을 넘지 못한 점이다.”¹⁷⁾라고 하였다.

윤희면도 결론의 서술 항목에서, “이러한 태도는 한백겸 자신이 광범위한 사료 수집이 안 되어 있는 한계를 인식하였기 때문이라 생각된다.”고 하였다. 또 한백겸의 학문적 태도 항목의, “이처럼 한백겸은 비판적이고도 객관적인 학문적 태도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라는 서술의 주 14에서 “사서의 철저한 비판을 바탕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님은 물론, 잘못된 것을 그대로 믿는 한계가 없다는 것이 아니다.”¹⁸⁾라고 언급하고 있다.

이상의 연구사를 통해서 살필 때, 이들 연구가 구암의 이 저서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데 불가결한 성과를 내고 있지만, 대부분 사학사적, 사상사적 연구에 치우친 감이 있다. 현 시점에서 그 이해 수준을 한 단계 더 높이려면, 원 저작의 원문에 대한 정밀한 고증을 통한 교차 분석에서 다시 출발하는 것이 첩경일 것이다. 근년에 『동국지리지』 역주본이 원주시 원주사료총서 제 40권으로 춘천학 학예연구사인 김근태에 의하여 번역·발간되었다. 필자는 이 성과를 높이 존중하는 한편 재검토하면서, 한백겸의 이 저작이 ‘실증적이고 고증적인 관점’의 열풍을 일으킨 촉매제가 되었다는 대체적인 평가에 대해 이견을 가지고 있는 필자의 문제의식이 제대로 반영되어 있지 않은 점을

14) 원유한, 전계논문 p209

15) 정구복, 전계논문 p60

16) 정구복, 상계논문 p61

17) 정구복, 상계논문 p76

18) 윤희면, 전계논문 p37

드러내기 위하여, 필자 나름으로 진행해왔던 역주를 바탕으로 이 논문의 뼈대를 구성하였다.

II. 사료 선택의 향방

韓百謙 『東國地理誌』를 관통하는 기본 전제는 동국의 ‘남쪽은 남쪽대로, 북쪽은 북쪽대로(南自南, 北自北)’, ‘4군과 2부는 4군과 2부대로, 삼한은 삼한대로(四郡二府自四郡二府, 三韓自三韓)’, 나아가 ‘동국은 동국대로, 중국은 중국대로(東國自東國, 中國自中國)’로 요약되는 통칭 ‘東國獨自史論’¹⁹⁾으로 명명할 수 있다. 그리고 그 지리적 경계는 대체로 대륙과 한반도로 설정되고 있다.

그런데, 이 사론은 동국의 역사를 중국의 간섭을 받지 않는 한반도 독자의 것으로 인식하면서도, 대륙과 한반도를 분리시키는 바로 이 전제 때문에 혼재되어 있던 이전 기록에 대한 정당한 사료 비판을 결여한 채, 대륙 관련 사료를 한반도에 일방적으로 무리하게 대입하는 문을 열어 놓았다. 그리고 이런 한계는 독자성의 확립이란 올바른 문제 설정에도 불구하고 당대 현실에 자신을 국한시킬 수밖에 없는 역사적 한계 속에서, 구암이 소속되어 있던 당시 양반 집권층의 계급적 입장이 반영된 결과일 것으로 보인다.

아래에서 각 항목별로 사료 선택의 관점에서 이 점을 확인해 보기로 하자.

1. 조선의 강역

조선의 강역은 『漢書』 조선전 기록 중 ‘도읍인 왕험’과 ‘경계인 패수’라는 두 지표에 대한 후대의 해석에서 크게 ①대륙설, ②한반도설로 나뉜다. ①대륙설은 『大明一統志』의 “大蟲江이 鴨綠江으로 유입되며, 鴨綠江은 요동도사 동쪽 560리에 소재하고 서남쪽으로 흘러 安市에 도달하여 바다로 유입된다.”는 기록이 대표적이고, ②한반도설은 청대 고증학자 沈欽韓, 『漢書疏證』에서 인용된 『朝鮮國志』의 “평안도 치소 평양부는 동남쪽으로 왕경까지 500여리이다.”라는 기록이 대표적이다. 한백겸은 『漢書』 조선전에 대한 주석 중 전자를 버리고, 후자만을 선택하고 있다.

이것이야말로 바로 직전까지의 대표적인 지리서인 『新增東國輿地勝覽』 평양부에서 “三朝鮮 … 蓋馬大山(…高勾麗盛時, 跨有遼河, 此山在其境內 … 姑存之, 以傳疑)” 등으로 혼재된 기록들을 의문으로 남겨서 후대로 전달한 것과 뚜렷이 구별되는 지점이다. 이른바 ‘기존 문헌의 내용을 믿고 따르는 풍조를 비판하면서 객관적이고 실증적인 논리로 기존의 설을 분석하여 시비를 가리고자 했다’고 후대 연구자들이 평가하는 구암 의도의 실체이다. 그것은 오히려 사실에 대한 훼손인데, 이것은 학문이 정치적 이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한계가 반영된 필연적 귀결이었을 것이다.

2. 고구려의 위치

19) 아래의 7. ‘남쪽은 남쪽대로, 북쪽은 북쪽대로(南自南, 北自北)’ 사론의 향방에서 보다 자세하게 언급한다. 이하 원문의 인용은 부록한 필자의 역주에 맡긴다.

고구려의 강역과 위치에 대해서는 대륙과 관련된 기록은 ‘객관적’으로 중국 자료를 전제하고, 한반도 관련 기록은 ‘실증적’이면서 ‘주관적’으로 서술하는 상반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즉 강역과 관련하여서는 『後漢書』의 “요동의 동쪽 천 리에 소재한다. 남쪽은 조선·예맥과, 동쪽은 옥저와, 북쪽은 부여와 연결하였다.”를 전제하여 객관성을 유지하는 듯이 보인다. 그러나 국가적 행사인 동맹이 치러지는 곳은 평안도 영원군 석룡굴로 실증하여, 주요 강역이 한반도 내인 듯한 인상을 주려는 의도가 보인다.

이런 상반된 입장의 주관적 의도는 다름 아닌 대륙과 한반도의 분리였다. 이를 객관적으로 증명하기 위하여 『後漢書』에서 인용한 『魏氏春秋』의 “요동군은 서안평현 북쪽이다. 소수가 남쪽으로 흘러 바다로 유입되는데, 구려 별종 거주지이며, 기인하여 명명하기를 소수맥이라고 하였다.”를 전제하여, 고구려와 소수맥을 동일하게 고구려라고 호칭하지만 그 실체는 두 종류라는 기록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고구려는 지금 관서 변방 일대이고, 소수맥의 경우 의주 압강 서쪽 언덕, 요동 외부 변방 경계라고 하여 자신의 의견을 관철시키고 있다. 즉 소수맥은 대륙 귀퉁이, 고구려는 한반도가 그 주 무대였다는 인상을 주려고 한 것으로 보인다.

철큐이지만, ‘소수’에 대해서도 청대의 고증학자 심함한은 ‘옛 소요수이고, 지금의 혼하이며, 지금의 태자하인 대요수와 요수에서 만난다’고 하여 그 위치를 명시하고 있다.

3. 동옥저의 위치

동옥저의 위치 비정은 개마대산의 위치가 관건이 된다. 구암은 『後漢書』에서 “고구려 개마대산의 동쪽에 소재한다. 동쪽은 큰 바닷가에 있고, 북쪽은 읍루·부여와, 남쪽은 예맥과 인접해 있다.”를 인용하면서, 개마대산에 대한 “개마는 현의 명칭인데, 현토군에 소속된다. 그 산은 지금 평양성 서쪽에 소재하는데, 평양은 바로 왕험성이다.”라는 주석을 생략하였다. 이 주석과 관련하여 청대 고증학자 심함한은 “명일통지의 해주위는 본래 옥저국 지역인데, 지금 봉천 해성현이며, 또 봉천 개평현은 고려국 개모성이고, 역시 그 지역이다.”라고 하여 대륙에 소재한다는 견해를 피력하고 있다.

구암이 생략한 주석과 심함한이 보충한 고증은 『新增東國輿地勝覽』 평양부 고적조항 개마대산의 “대명일통지에서 평양성 서쪽에 소재하고, 그 동쪽은 바로 옛 동옥저국 지역이다.”에서 확인되지만, 동옥저 위치와 관련해서는 『新增東國輿地勝覽』에서는 한반도, 심함한의 고증에서는 대륙이라는 상반된 주장의 근거로 제시되고 있는 셈이다.

한편 『新增東國輿地勝覽』에서는, 이어서 『資治通鑑』의 ‘수 양제가 고려를 정벌함에 개마대산이 있는 현토군 소속 개마도를 나와 압록수 서쪽에 있다’는 기록, 『漢書』의 ‘현토군 서쪽이 개마현이고 마자수가 있다’는 기록, 『唐書』의 ‘마자수를 압록강이라고 한다’는 기록을 종합하여 ‘개마대산이 아마도 압록강 바깥 서북쪽 경계에 소재하는 듯하다’고 하고, ‘고구려 전성 시기에 요하를 타넘어 이 산이 그 경내에 있었으며, 이

때문에 명일통지가 평양을 고려 옛 도읍이라고 하고, 기인하여 등재하였을 따름'이라고 추론하며, 정확하게 어느 지역인지 상세하지 않으므로 '그대로 기록하여 의문을 전한다'는 그야말로 '춘추필법'에 충실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또 다른 한편 『新增東國輿地勝覽』에서는, 다시 이어서 '고려 임연의 구성기에서 9성이 서북쪽으로 개마산으로 격리되어 있다'는 기록을 인용하며, '9성이 지금 함경도에 소속되어 있고 그 서북쪽은 여진의 지면으로 평양의 지경이 아니다'라고 하여, 개마대산의 소재지가 한반도라는 기록과 어긋남을 충실히 사료비판하고 있다.

그런데, 구암은 임연 9성기에 대한 '불충분한 추론'(뒤에서 보임)을 바탕으로 한 듯, 옥저는 지금의 함경도라고 비정하고, 계절에 따른 교통의 전환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함경도 전체를 북쪽과 남쪽으로 나누어, 읍루가 본래 옥저의 북쪽에 소재하였지만 지금은 남쪽에 인접해 있다고 단언하며, 두만강까지는 미치지 못하였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사료만 채택하고, 그렇지 않은 사료는 마구 잘라버리는 이런 관점이, 이른바 이전의 무비판적인 역사 서술 풍조와 다른 '객관적이고 실증적인' 역사 서술의 실체이며, 그 사이를 관통하는 것은 대륙과 한반도를 단절시키고 한반도를 '작지만 온전한 국가'로 재정립하려는 정치적 이념이었다고 할 수밖에 없다.

4. 예·맥의 위치와 한사군의 향방

예의 사방 경계를 『後漢書』를 인용하여, "북쪽으로 고구려·옥저와, 남쪽으로 진한과 연결하였고, 동쪽으로 큰 바다에서 끝나며, 서쪽으로 낙랑에 도달한다. 예 및 옥저·구려는 본래 모두 조선의 지역이다."라고 하면서, 위 조선의 강역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대륙설을 버리고 한반도설만을 채택하는 시도를 반복하고 있다.

즉, 예와 맥은 비록 예라고 통칭하지만, 그 실체는 서로 다른 종족이며, 춘천으로부터 북쪽으로는 해서와 관서의 산골 지역은 맥이 되고, 그 동쪽은 예가 되어 간혹 동예라고 부른다고 했다는 것이다. 이 결론은 『新增東國輿地勝覽』 강릉대도호부의 "본래 예국(濊國)[철국(鐵國) 또는 예국(薺國)]이라고도 한다.]인데, 한(漢) 나라 무제(武帝)가 원봉(元封) 2년에 장수를 보내, 우거(右渠)를 토벌하고 4군(四郡)을 정할 때에, 이 지역을 임둔(臨屯)이라 하였다."라는 기록과 아래 2군 소속 昭明에 대한 『漢書』 지리지 낙랑군 주석 중 '남부도위 치소'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도위 치소는 당연히 유명한 도시에 소재한다. 춘천부는 예전 맥국이고, 또 소양강이 있으니, 아마도 이곳이 예전 소명이 될 듯하다. 여기로부터 한수 상류까지가 임둔 옛 강역이며, 모두 관할 내부에 소재한다."라는 추론을 종합하여 내린 것으로 보인다.

더욱 심각한 것은, 구암 바로 직전 지리지에서 '섞여 나열되어 있던' 한편의 '예국' 관련 '강릉대도호부'와 다른 편의 '한사군, 임둔' 관련 '본래 조선 지역'에 대한 '진정 객관적이고 실증적으로' 수행해야 할 사료비판을 생략한 채, 후자는 버리고 전자만을 채택하여 '한사군을 한반도 지역으로 기정사실화하는' 문을 열어놓았다는 점이다.

5. 부여국의 위치

부여의 종족을 말갈이라고 통칭한다고 하고, 남북조 때 고구려에 편입되었으며, 당나라에서 발해국이 되었고, 요나라의 동단국이 되었다가, 송나라 때 숙여진이 되었으며, 원나라 때 동진국이 되었고, 구암 당시 누르하치 지역이 되었다는 견해를 표명하면서도, 『後漢書』의 ‘본래 예의 지역이었다’는 기록을 전제로 하여 한반도 내 강릉과의 연관을 암시할 뿐, 대륙과 한반도의 단절과 연속에 대한 독자의 이해를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

이에 반해 오히려 후대인 청나라 고증학자 심함한은 그 위치를 『通典』을 근거로 한 ‘營州 柳城縣’, 『大清一統志』를 근거로 한 ‘奉天府 開原縣’ 등으로 제시하면서 후속 연구의 길을 열어 두고 있다.

6. 읍루의 위치

부여와 마찬가지로 통칭해서 말갈이라고 하며, 송나라 때 여진이 되었고, 구암 당시 번방 오랑캐 여러 부락이 되었다는 견해를 표명하면서 대륙과 한반도의 연관을 모호하게 처리하고 있다.

이에 반해 청나라 고증학자 심함한은 『元史』 지리지의 근거로 ‘심양로가 본래 읍루의 옛 지역이라는 것’, 또 ‘개원로는 옛 숙신 지역이라는 것’, 『通典』을 근거로 ‘읍루가 불함산 북쪽에 소재한다는 것(쥬나라에서는 숙신, 魏나라에서 물길, 수나라에서는 말갈이라고 함)’, 『大清一統志』를 근거로 ‘장백산은 길림 오라성 동남쪽에 소재하며, 옛 명칭이 불함산이고, 지금 봉천부·철령현·승덕현 및 영고탑·흑룡강이 모두 읍루국 지역이며, 읍루 옛 성곽이 지금 철령 남쪽 60리에 소재한다는 것’, 그 외에도 『魏書』·『遼史』·『大明一統志』·『唐書』를 근거로 다양한 자료를 제시하여, 후속 연구를 안내하고 있다.

7. ‘남쪽은 남쪽대로, 북쪽은 북쪽대로(南自南, 北自北)’ 사론의 향방

이 항목에서 마침내 구암 동국역사지리관의 전모가 드러나고 있다.

우선, 한강 일대를 경계로 크게 북쪽 삼조선과 남쪽 삼한으로 나뉘며, 이 둘은 상호 간섭하지 않았다. 북쪽 중 구암 당시의 평양은 조선현, 강릉은 동이현, 함경도는 옥저성, 평안도 강변 일대는 고구려이며, 기원전 108년에는 조선현이 낙랑, 동이현이 임둔, 삽현군이 진번, 옥저성이 현토였다.

그 근거는 두 『漢書』 열전과 연대의 상하 및 토지 경계의 원근이란 기준이며, 특히 남쪽 삼한은 중국에서 거리가 멀어 별도의 천지 사이에서 오랜 강역의 하나가 되었다고 하였다. 이른바 동국의 한강 일대를 경계로 한 ‘북쪽은 북쪽대로, 남쪽은 남쪽대로’ 사론이다. 나아가, 이것을 근거로 『三國史記』와 『三國遺事』에서의 최치원 주장에 대한 소개 및 옹호와 『東國史略』의 권근 설명에 대한 비판이 이루어지고 있는바, 말하자면, 동국남북독자사론을 재천명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아울러 권근이 『後漢書』에서 변한이 남쪽에 소재한다고 한 것은 한나라 경계인 요동 지역으로부터 언급한 것

이라고 기술한 것을 구암이 인용함으로써 『東國史略』 저술 시점까지도 대륙과 한반도의 상호 연관 아래 지명이 고찰되고 있었음을 드러내고 있다. 이렇게 함으로써, 김부식·일연·권근에 대한 단순한 비판을 넘어 그들의 사론을 부정하기에 이르렀으며, 따라서 『東國地理誌』부터는 단지 동국 내부의 남북만이 아니라 대륙과 동국 남북을 뿔뿔히 그린 한반도가 분리되어 독자성을 갖는 새로운 동국독자사론이 형성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또한 이 지점에서 동국남북독자사론과 동국독자사론의 연결 고리가 지어지고 있는 것도 확인할 수 있다.

어쨌건, 지금까지 1~6에서 진행한 교차 분석과 사료 비판에 근거하면, 이 사론에서는 대륙과 한반도를 분리시키는 전제 때문에 자의적인 사료 선택이 이루어졌고, 혼재되어 있던 이전 기록에 대한 정당한 사료 비판이 결여되어 있었다. 결과적으로 동국의 역사를 중국의 간섭을 받지 않는 한반도 독자의 것으로 인식하면서도(이런 의미에서 통칭하여 ‘동국독자사론’이라고 부를 수 있겠다), 대륙 관련 사료를 한반도에 일방적으로 무리하게 대입함으로써 역설적으로 ‘한사군을 한반도 안으로 끌어들이는’ 문을 열고 말았다. 이것이 구암의 애초 의도와는 관계없이 이후 동국 역사의 독자성과 관련한 소모적 논쟁을 낳게 한 제 1의 한계가 되어, 오늘에까지 이르고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야말로 구암 바로 직전까지 ‘의심나는 것은 그대로 전달하던’ ‘述而不作’의 역사 서술 태도와 결별하는 것이었고, 이것이 ‘객관적이고 실증적이라’고 주장한 이전 연구자들의 평가의 실체였다.

8. 구암이 상고시대 대륙에 남겨둔 지역의 향배

구암은 ‘동국독자사론’에 근거하여, 4군 항목에서는 낙랑군을 평양부, 현토군을 함흥부, 임둔을 강릉부로 고증하고, 2부 항목에서도 평주도독부를 평산부, 동부도독부를 영동 7현 부근으로 비정하였으며, 2군 항목에서도 서개마를 묘향산, 상은태를 은산 일대, 패수를 청천강, 점제를 황해도 연안·배천 바닷가, 수성을 수안군 부근, 증지를 증산, 대방을 평안도 용강현, 소명을 춘천부, 탄열을 한강 유역으로 고증하고 있다. 그 중요한 판단 근거는 한반도에 한정된 후대의 기록, ‘세상 전승’과 ‘형제’와 ‘읍호’이다.

다만 2군 중 현토의 속현 고구려에 대해서는 『漢書』에서 “요산은 요수가 출현하는 곳이고, 서남쪽으로 흘러 요대에 도착하며 대요수로 유입된다. 또 남소수가 있는데, 서북쪽으로 변방 바깥을 경과한다.”는 본문 기록을 한반도 내부로 끌어들이는 것에 무리함을 느꼈던 듯하다. 그러므로 본문 외에 應劭의 주석인 “옛 구려 오랑개라고 한다.”는 기록을 덧붙여 인용하고, 원래 고구려와 구별되는 소수맥으로 지금의 요동외부 변방 경계에 소재한다고 하며, 예외적으로 ‘별종’을 ‘대륙의 한 귀퉁이’에 남겨 두었다.

그리고 2군 중 고현, 후성, 요양 3현의 경우, 『後漢書』에서 “예전 요동에 소속되었다.”라고 기록한 것을, 대륙 요동에서 한반도 내부로 이동한 것으로 보아, 고구려 태

조대왕이 현토를 침구하여 위태로워지자 한나라가 이 3현을 대륙 요동에서 분할하여 한반도 개마·은태 사이로 분할하여 소속시켰을 것으로 해석하였다.

9. 삼국 고구려의 疆土

고구려 지리를 역사적으로 검토하면서 구암은 초기 種落과 후기 疆土를 구분하고 있다. 전자는 종족의 부락 내지 촌락인 거점을 말하고, 후자는 강역 토지인 영역을 지칭하는 듯하다.

고구려 발상지인 졸본부여를 서안평으로 보아, 요동외부 변방 경계에 소속되어 있고, 마자수가 바다로 유입되는 곳이라고 하며, 당시의 적강인 비류수도 역시 그 지역에 소재한다고 파악한다. 또 이를 근거로 『新增東國輿地勝覽』에서 ‘졸본부여를 성천’이라고 한 기록도 부정한다. 요컨대 동국의 독자적 역사를 강조하고자 한 동국독자사론의 입장에 서서 한반도 내부는 아니지만 최대한 가까운 현재의 압록강변으로 바짝 붙여서 이해하고자 하는 의도가 은연중에 드러나고 있다.

이 점은 두 번째 검토 대상인 국내성 소재지에 대한 언급에서 보다 분명히 드러난다. 고구려 지역의 다수가 압강의 내부에 소재한다고 주장하며, 국내성을 인주에 비정하고 있는 것이다. 그 근거로는 예의 ‘산의 형태와 지세’, 고구려의 개척이 동쪽을 향해 진행되고 있었다는 점, 고려 장성 터의 시발지로 추정되는 압록강변 인주에 터와 풍속이 남아 있다는 것, 중천왕이 장발부인을 가족 주머니에 넣어 던져버린 곳을 서해라고 기록한 점을 들고 있다. 이에 근거하여 김부식 『三國史記』의 ‘이미 항복한 성곽 중의 하나인 국내성이 鴨綠 以北이고, 당시 북쪽 왕조 지경 안’이란 기록을 부정하고 있다.

그렇지만, 서안평의 위치와 관련하여서는, 청대 고증학자 심흠한의 『後漢書疏證』에 의하면, ‘서안평현 북쪽에 있는 소수는 옛 소요수이고 지금의 혼하’라고 하여, 요동외부 변방 경계에서 상당히 떨어진 요녕성 심양시를 흐르는 요하 지류라는 주석도 있다. 또 성천의 다른 명칭인 성주에 대하여 『遼史』는 ‘거란 성종 때 성종 딸 진국장공주를 위해 설치하였는데, 宜州 북쪽 160리이고, 上京 남쪽 740리’라고 기록하고 있다. 어느 기록에 의하든 압록강변에 바짝 붙어 있는 곳은 아니다.

또 『高麗史』에서 이른바 장성이라는 북경관방의 시작점인 ‘서해 바닷가 옛 국내성 경계이며 인주의 압록강이 바다로 유입되는 곳’을 현종1년(1010) 거란군 2차 침입시의 주둔지로 기록하고 있는데, 이즈음 동일 지명을 『遼史』에서는 현재 대륙 요하 주변 도시인 通州, 銅山과 함께 기록하고 있어, 현재 한반도 압록강변 평안도 인주와의 교차분석을 통하여 합리적인 해석을 필요로 하고 있다.

그리고 환도성은 국내성 근처, 또 당연히 평양을 낙랑현 치소이자 당시 한반도 평안도 치소로 이해하고 있다. 동항성은 당시 한반도 평양 목역산, 장안성도 기자 정전 구획이 여전히 완연하고 당시 향촌 사람들이 밭두둑을 갈 때 주춧돌을 다수 발견하는 옛 궁궐터로, 남평양은 당시 한양도읍으로 파악하고 있다.

다음으로 封疆 항목을 따로 설정하여 앞에서 살핀 상고시대 지명을 거론하면서 여

전히 대륙설은 버리고 한반도설만을 채택하여 서개마와 상은태를 평안도 서쪽 변경 및 산악군 지역, 낙랑을 평안도 연해 및 황해도·경기 지역, 소명도위를 강원도 영서 지역, 불내도위를 강원도 영동 지역, 동옥저를 함경남도, 북옥저를 함경북도로 기록하고 있다.

또 따로 설정한 형세와 관방 항목에서, 압록강을 중원으로 왕래하는 나루라고 하고, 책구루를 함경북도에 소재한다고 하였다. 또 패강을 위에서 설명하였다고 주석하면서, 이어 『世宗實錄』과 『大明一統志』에서 ‘청천강을 살수라고’ 한 기록의 변천 과정에 대한 흥미로운 분석을 진행하고 있다. 먼저, 대무신왕 27년(44)에 한나라 광무제가 낙랑을 정벌하고 자신에게 소속시킨 곳을 『三國史記』가 ‘살수 이남’이라고 하고 『東國通鑑』에서는 ‘살수 이북’이라고 하였는데, 구암은 『東國通鑑』의 기록을 선택하여, 동왕 20년(37) 고구려에 의해 멸망당했던 낙랑을 이때 다시 탈취하여 소속시킨 곳이 ‘살수 이북’이라고 읽어서, 평양이 살수 이북이니 평양 이북인 청천강이 살수가 될 수 없으며,²⁰⁾ 신라 소지왕 16년(494)에 장군 실죽 등이 고구려와 살수의 평원에서 전투하였고 백제왕이 구원하였다는 기록으로 볼 때도 이 살수가 청천강일 수 없다고 하였다.

그러고는 살수가 본래 평양인 낙랑의 남쪽에 소재하였던 것인데 수나라와 당나라를 지나면서 비로소 북쪽으로 변해간 듯하며, 무릇 지역 명칭과 고을 칭호는 이렇게 된 사례가 많다고 하였다. 이 경우, 수나라와 당나라가 처음 동국인이 잘못 전승한 것에서 착오를 일으켰고 후대인이 또 수나라와 당나라의 역사 기록이 정확하다고 착오를 범한 결과라며 이를 바로 잡지 못함을 통탄할 따름이라고 하였다. 또한 그렇기는 하지만, 삼국 이후로 역사를 편찬한 학파가 하나의 학설을 성립시켰으니 지금 개정하려고 하면 도리어 혼란을 일으킬 것이라고 우려하고, 단지 그 취지를 상실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다시 말하면, 어느 기록도 단번에 부정하지 말고 그 변천 과정을 추적하여 전체의 취지를 살려서 전모를 밝혀야 한다는 것이다.

이야말로 객관적이고 실증적인 ‘춘추사관’이고 ‘실증사학’이다. 구암은 나아가 단지 경계할 것은 이것을 견인하여 저것을 증명하고 상호 은폐·호위하여 조작된 설명이 되도록 해서는 안 되는 것이라고 하였다. 지극히 당연한 금언이다. 그런데 지금까지 진행해 온 사료 선택의 향방을 가늠해 볼 때, 구암의 기본 방향이 ‘대륙설’을 버리고 ‘한반도설’만을 채택하는 것이었음이 어느 정도 드러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비해 구암이 언급한바 ‘삼국 이후 역사를 편찬한 학파가 성립시킨 학설’은 다름 아니라 ‘혼재된 기록을 의문으로 남겨서 후세에 전달하는’ 그야말로 ‘述而不作’한 것이어서 개정하고 말 것도 없다. 오히려 구암이 동국독자사론을 전제하여, 한편으로는 독자성을 강조하면서 다른 한편에서 혼재된 사료의 교차 분석을 결여한 채, 이것을 견인하여 저것을 증명하고, 후대에 상호 은폐·호위하며 조작된 설명이 만연하도록 하는 문을 열었다

20) 이 논의와 관련해서는 『대동수경』 3 薩水에서 순암 안정복이 『東國通鑑』의 주장을 비판하고, 『三國史記』의 기록을 지지하였음을 소개하며, 필자인 다산 제자 이청도 다시 이것에 동의하면서 자세한 설명을 덧붙이고 있다. 그런데, 『隋書』 60 열전 25 우중문전에 의하면, 살수는 요동 전투 지역으로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따라서 그 실체를 밝히기 위해서는 대륙과 한반도에 걸친 교차 분석을 통한 종합적 검토가 수행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논의를 한반도 내부로 한정시키게 된 것이 『東國通鑑』, 『東國地理誌』에서부터 비롯되었음을 지적해 둘 필요가 있다.

고 보는 것이 옳을 것 같다.

나아가 또 하나 주목되는 점이 있다. 구암이 보기에, 동국 지리의 북단에 있던 고구려의 본래 경계가 당시 왕왕 장성의 옛 터가 있던 평안도 강변 및 함경도 삼수·갑산, 부령 경계까지였던 듯한데, 이것을 북쪽 경계 장성 소재 산의 형태 및 지세와 비교할 때 어긋난다고 하였다. 그리고 그것은 문자왕 이후 부여국을 고구려에 편입시키고 동쪽 변경 읍루를 대비하여 축조했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또 예·맥·옥저를 올라미로 해서 동진 이후로 마침내 낙랑·현토를 병합하니, 중국 땅이 비로소 전부 고구려의 소유로 되었다고 하였다.

이렇게 하여 확보된 지역이 遼河까지를 경계로 하는 요동이었는데, 그 안에 고구려 별종인 옛 소수맥 근거지인 동팔참, 요동 개주 서남쪽인 요동성·안시성·백암성·연안성, 요동 개주위인 개모성, 아마도 여순보일 듯한 오골성, 요수 서쪽에 소재하는 무려라가 포함되어 있다. 그 중요한 판단 근거는 역시 산의 형태와 지세이다.

이런 고구려는 668년 멸망되고 평양에 안동도호부가 설치되었다. 그런데 구암은 『唐書』 발해말갈 기사와 『三國史記』 고구려 말기 지리 기사를 나름대로 유추·해석하여, 699년에 당나라 군대가 철수하고 이 지역을 반환하니 전부 신라의 소유가 되었으며, 오직 서북쪽 한 귀퉁이만이 발해국으로 들어갔다고 하였다. 한반도를 독자적 영역으로 하는 동국이 한때 한4군으로 중국에 내주었던 강토를 다시 회복하고, 나아가 대륙의 요하까지 진출한 것에 대한 은근한 자부심을 드러내려고 했던 것일지도 모르겠다. 그렇지만 한4군을 한반도에 설치하여 중국에 내주었다는 것도 흔재된 사료를 선택적으로 취급하여 내린 사론의 한 사례이므로 여전히 교차분석을 통한 재검토가 요청되고 있다. 동국독자사론이 내포하고 있는 ‘독자성’의 모호한 이중성이 드러나는 지점이며, 그것이 후대에 끼친 제 1의 한계로 되었음은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다. 이 점과 관련하여서는 다음의 신라 통합 항목에서도 다시 추가로 언급하기로 한다.

10. 신라 통합 후 패강 이서와 도련포 이북 봉강의 향방

구암은 신라 통합 이후 국토 북쪽 봉강을 다음과 같이 추론한다.

먼저 『三國史記』에 근거하여, 당나라 군대가 철수·귀환한 뒤, 경덕왕이 국내를 분할하여 설치한 9주인 상주(지금 상주), 양주(지금 양산), 강주(지금 진주), 무주(지금 광주), 전주(지금 전주), 웅주(지금 공주), 명주(지금 강릉), 삭주(지금 춘천), 한주(지금 경기도)에서 한반도 북쪽 지역 지명이 등장하지 않는 점에 주목한다. 그리고 그 서북쪽 지역에 대한 당시 경영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東國輿地勝覽』 해서 지역의 신라 개정 호칭을 확인한 뒤, 유독 패강 이서 지역에서 그런 기록이 없음을 근거로, 이 지역이 발해의 근거지가 되었을 것으로 추론하였다.

또 구암 자신의 상고 시대 옥저에 대한 추론과 『高麗史』 동계 ‘삭방도가 도련포를 경계로 했다’는 기록을 근거로 한 듯, 동북쪽도 정평군 도련포를 경계로 하였고, 그 북쪽은 오랑캐에게 몰수되었을 것이라고 하였다.

그리고는 신라 통합 사업을 완수한 것에 만족하고 한 귀퉁이에 치우친 도읍에 안주

하여 서북쪽 절반 지역을 인근 적국에 가져다주기를 헌신짝처럼 하였다고 통탄하고 있다. 만약 국토 중앙으로 천도하여 사방 경계를 제압하였더라면, 고구려 옛 강역을 수습할 수 있었고, 요·심·부여 지역이 우리 판도가 되었을 것이니, 저들 거란과 여진이 국경 바깥에 웅대한 강역을 제멋대로 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아쉬워하였다. 앞에서 고구려 강토를 거론하면서 한4군의 축출과 요하까지의 진출에 대한 은근한 자부심을 비친 것과 궤를 같이 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른바 동국독자사론이 가진 독자성이란 이중성의 단면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우선 앞의 안동도호부와 관련하여, 요하까지를 경계로 했던 고구려 강토를 699년 이후 신라가 전부 소유하였다고 한 구암 자신의 언급이 이 대동강 경계 추론과 서로 배치되고 있어 이에 대한 교차 분석을 통한 정합적인 추론이 아직까지도 과제로 남아 있다.

다음으로 신라 개정 호칭으로 언급한 해서 지역 중 海州의 경우, 구암이 직접 인용한 직전 지리서인 『東國輿地勝覽』에서 그 군의 명칭과 관련하여 孤竹에 대한 기록을 의문을 달아 존치시키고 있는 차이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즉 『隋書』에서 고려가 본래 고죽국이었으며, 『東國輿地勝覽』에서 당시 해주라고 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신증에서는, 『大明一統志』를 인용하여 ‘永平府 서쪽 15리에 고죽국이 있다’고 하였는데, 이전 서적에서 해주를 고죽이라고 한 것의 근거를 알 수 없다고 충실하게 고증하고 있다. 또한 『世宗實錄』 지리지에서도, 해주 동북쪽에 속칭 수양산이 있고, 동남쪽 바다 가운데 속칭 형제도가 있어, 세속에서 백이·숙제가 여기서 죽었으므로 고죽국이라고 한다는 기록을 ‘무비판적’으로 남겨두고 있다.

옥저가 경계로 했다는 정평군 도련포도 쌍성총관부와 관련된 雙城, 和州 등 지역과 연관지어 생각할 때, 삭주의 경계라는 기록의 의미에 대해 재음미할 필요가 제기된다.

요컨대, 구암의 동국독자사론이 가진 독자성의 이면에서 드러나는 ‘대륙과 한반도의 분리’라는 단정적 전제로 인해 도리어 통합 신라 봉강의 진면목이 흐리게 된 것이 이 사론의 제 2의 한계이다.

11. 고려 동계의 궤적

구암은 『高麗史』 9성 연혁 중 축성 시와 철거 시의 숫자 차이에 대한 의문과 추론을 소개하고, 이에 덧붙여 예종 4년에 다른 성곽들은 벌써 철수·반환하였는데 6년에 길주 중성과 공험진 산성을 축조하여 적국 경계 안에 남겨둔 이유에 대하여 의문을 표시하였다. 또 예종 3년에 신축한 6성 중 ‘공험진 소재 선춘령이 종성 정북쪽 7백리에 소재하고 큰 비석이 있다’고 한 『東國輿地勝覽』의 기록과 ‘그 지역은 남쪽으로 우리나라 장·정 2주에까지 이르고 동쪽으로 바다에 마주치며 서북쪽으로 개마산과 격리되어 있는데 사방 3백 리’라는 임언의 「영주벽상기」의 기록과 ‘동해에서 일어난 이위 경계 상의 瓶項’에 대한 『高麗史』 기록과 고구려 개마대산에 대한 『漢書』의 기록과 함주를 비롯한 『新增東國輿地勝覽』의 각 지경 기록을 비교하여, 산천 형태와 지세 및 도로와 거리의 원근이 서로 어긋남을 지적하였다. 또 철령 관문 이동은 본래 북옥저

지역이고, 뒤에 고구려에 소속되었는데, 신라 통합 때 그 지역을 상실하였고, 고려는 정평 도련포를 경계로 삼았는데 지금도 옛 터가 잔존하고 있는 등의 정황도 제반 기록과 부딪힌다고 지적하였다. 그렇게 된 이유를 후대 사람들이 그 설명을 고집하고서는 그 실질을 구명하지 않고 진상인 것처럼 만들어 윤관 경계를 두만강 너머 수 천리 지역까지 연장하는 오류를 범했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바로 후대 연구자들이 ‘객관적이고 실증적’이라고 한 그 기준이다.

결론적으로 지금 300리 거리인 개마대산과 병향의 형세로 추측하면, 선춘령은 멀어도 마천·마운 두 고개 사이를 벗어나지 않으며, 마운령 위에 돌기둥이 서 있는 옛 터가 있고, 윤관 이후 고려가 끝날 때까지 이 지역을 경영·통치한 기록이 없으므로, 이것이 윤관의 옛날 관방일 것이라고 추론하였다.

물론 이런 추론의 암묵적 전제에서도 한반도의 독자성을 추구하면서도 이면에서 대륙과 한반도를 분리하려는 이중성을 가진 동국독자사론이 관철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우선 주요 근거인 개마대산에 대하여 『後漢書』 동옥저 기록 중 ‘개마는 현의 명칭이고, 현토군에 소속되며 그 산은 지금 평양성 서쪽에 소재하고, 평양은 지금 왕험성’이라는 부분을 구암은 한반도 내로 읽었지만, 청대 고증학자 심흡한은 이 기사의 주석에서 『大明一統志』를 근거로 ‘해주위는 본래 옥저국인데, 지금 봉천 해성현이며, 또 봉천 개평현인 고려국 개모성도 역시 그 지역’이라고 대륙 요동임을 고증하고 있다.

다음으로, 도련포가 소재하는 한반도 철령 인근 함주, 쌍성 등 지명으로 ‘요동의 동일 지명을 사칭하였다’는 『東文選』의 권근 진정표 기록은 이 지역이 대륙 요동과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직접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실제 이들 지명이 『遼史』 동경도에서 ‘고려와 인근 지역’이라는 信州와 함께 등장하고 있어, 99년 동안 원나라에 몰수되어 있었던 쌍성총관부의 관할 영역이 대륙 요동에까지 미쳤고, 그것이 본래 동계의 영역이었음을 증언하고 있다.

또 구암이 윤관 관방의 근거라고 추정한 마운령 돌기둥은 1929년 최남선에 의해 진흥왕 순수비임이 밝혀져, 이에 근거하여 동계가 한반도 이내일 것이라고 주장한 추론은 힘을 잃었다.

고려의 동계가 한반도 이내인가 아니면 대륙에까지 걸쳐 있었는가에 대한 이후의 논의가 소모적이고 퇴행적으로 된 입구에, 비록 단정을 피하는 여지를 조심스럽게 열어두고 있다고는 하지만 한반도와 대륙을 분리시키고 있는 고려 동계에 대한 이 주장이 자리하고 있다는 것이 ‘동국독자사론’이 가진 세 번째 한계라고 지적해야 할 것이다. 자신의 전제에 갇히는 것을 경계하면서도 도리어 고집하게 된 결과를 낳은 것이다. 조선왕조 전체를 통하여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던 유민과 조선후기 월경지 분쟁을 고려할 때, 백성들을 한반도 내부로 한정시키고 경계 바깥으로 진출한 백성들을 방기하는 당시 양반 집권 세력의 이해관계와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12. 고려 북계의 경과

구암은 북계가 지금의 평양도 지역이며, 북쪽으로 말갈과 연결되고 서쪽으로 중국과 접속하였다고 파악한다. 그 근거로 『高麗史』 지리지 기록을 전제하고 있는데, 당시 위치에 대한 고증은 『東國輿地勝覽』에 의거한 것으로 생각된다.

그런데 이 당시 위치 고증도 이른바 후대 연구자들이 평가하였듯이 ‘기존 문헌의 내용을 믿고 따르는 풍조를 비판’하고 있는데, 여기서 그 대상이 된 문헌이 일차적으로는 다른 아닌 『東國輿地勝覽』, 『高麗史』 지리지 등 선초의 기록들이었을 것이고, 그 비판의 기준도 ‘동국독자사론에 근거하여 재단해서 동국의 지리 영역을 한반도로 한정하며 그 내부와 관련된 역사 기록은 존치하고 대륙 요동과 연결되는 역사 기록은 버리는 것’이었다. 이것이 ‘객관적이고 실증적인 논리로 기존의 설을 분석하여 시비를 가리고자 했다’는 이어진 평가의 진면목이었다.

먼저 서경 평양부와 관련한 사료 비판 과정을 검토해 보자. 『高麗史』에 존재하다가 이후 지리 기록에서 사라진 것으로 『文獻通考』를 인용한 ‘평양성 동북쪽에 魯陽山이 있다’는 기록이 있는데, 이 기록의 원전은 두우의 『通典』이다.箕子와 東明王 관련 기사는 『高麗史』, 『世宗實錄』, 『新增東國輿地勝覽』에서 모두 기록하였고, 단군 관련 기사는 특이하게 『世宗實錄』에서만 사당과 『檀君古記』를 인용한 신령스럽고 이상한 일로 자세하게 기록하였다.

구암은 이들 사서를 전부 검토했을 텐데, 이 부분과 관련하여 아무런 언급을 하고 있지 않아 암묵적으로 이들을 당시 평양과 관련된 역사적 사실로 승인한 듯이 보인다. 이 점은 고조선의 위치와 고구려의 중심 지역이 한반도 내부이며, 고구려 말기에 대륙 요동으로 진출한 것에 대해 은근한 자부심을 비친 구암 동국독자사론의 인식과 궤를 같이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동명왕을 비롯한 고구려 지방 지명과 관련하여 구암과 1세기 사이에 이 문제를 가지고 저술 활동을 한 노촌 임상덕의 『東史會綱』은 이 기록을 대륙 요동과 관련되어 있다고 주장하며, 그 방증으로 김부식 『三國史記』의 미상이라고 한 것이 적합한 소론이라고 부연하고 있다. 다소 길지만 이 부분의 전문을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삼국 시기 지명으로 지금 고증할 수 없는 것이 매우 많으며, 고구려 지방이 더욱 심하다. 생각건대, 동명이 처음 흥기한 지역은 지금 모두가 상부 국가에 편입되었는데, 그 동북쪽은 건주위의 경계가 되고, 서북쪽은 개주위의 경계가 되었으니, 우리나라가 도서와 전적으로 고증하여 근거로 삼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런데도 동국인 민간 풍속의 황당하고 허탄한 말로서 동명의 기린마 등 사안이 와전을 계승하고 괴이함을 답습해서 바로 고전의 진실로 되어버렸다. 지금 평안도 전체 내부의 산천과 성곽의 명칭이 모두 동명국 역사에서 보이는 명칭과 별호에 건강부회되어 실제로 과장되고 허탄한 것인데, 여지승람은 변증을 수행하지 않고 곧바로 동명이 낙랑에서 흥기하였다고 하며, 마침내 성천을 송양국이라고 하고, 용강을 황룡국이라고 하며, 우발수가 지금 영변 향산에 존재한다고 하고, 행인국도 역시 영변 고적의 끝에 부기하였다. 이런 곳이 매우 많은데, 모두 오류인 듯하다. 김문열 삼국사 지리지에서 ‘졸본천, 송양국, 우발수, 황룡, 행인 등 국은 모두 미상’이라고 하였다. 이것이 아마도 정확한 소

론인 듯하다.”

그리고 노촌의 이 주장은 1770년에 편찬된 『東國文獻備考』에서 그대로 채택되어, 조선 후기 국가의 공식적인 견해가 되었다. 한반도와 대륙과의 연관과 단절에 대한 근본적 천착에 대한 언급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에서 한계가 있지만, ‘건강부회’를 비판한 점에서 구암보다 역사적 사실에 보다 더 가깝게 다가가고 있다고 말할 수 있겠다.

요컨대 ‘객관적이고 실증적인’ 구암 비판의 기준은 문자 그대로 ‘述而不作’의 춘추사관과도 ‘실학’과도 거리가 먼 ‘동국 지리를 한반도로 한정하는 기록만을 취사선택하고 대륙 요동 관련 기록은 무시하거나 한반도의 것으로 둔갑시키거나 예외적인 것으로 취급한’ 것이다. 그리고 이것이 ‘동국독자사론’이 가진 독자성의 실체이며, 이 북계에 관한 이 사론이 후대의 소모적인 논쟁에 문을 연 네 번째 한계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런 관점으로 계속해서 安北大都護府 寧州 관련 기사를 검토해 보기로 하자.

우선 구암은 이 安北大都護府의 연혁을 『高麗史』에서 전제하면서 몽고 침략 이후를 강조하여 인용하고 그 명칭을 安邊大都護府로 고쳐 썼으며 청천강에 대한 살수와 을지문덕 관련 기록을 생략하였고, 당시 지명을 『東國輿地勝覽』을 전거로 했을 법한 평안도 安州牧으로 비정하고 있다. 몽고 침략을 강조한 것은 동국 독자성에 입각한 그의 관점의 일단이 투영된 것일 것이다. 그런데 이 명칭 기록의 잘못은 지금까지 동국 지리를 한반도로 한정하고자 한 전제가 조목조목 드러나는 상황에서 단순한 오기라기보다 국경 변방임을 강조한 의도가 반영된 개변이나 실수로 보는 것이 크게 무리가 아닌 듯하다.

그 생략된 연혁 부분도 현재의 국경 논쟁에서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고려사에 의하면, 본래 고려의 彭原郡이었는데, 고려 태조 14년(931)에 安北府를 설치하였고, 성종 2년(983)에 영주 안북대도호부가 되었으며, 현종 9년(1018)에 안북대도호부로 개칭하였다고 하였다. 여기서 주목되는 점은 성종 2년(983)과 현종 9년(1018) 사이에 영주라는 자연 명칭이 사라지고 단순한 행정 명칭인 안북대도호부로 되었다는 것이다. 이 변화가 나타난 사이의 기록을 『遼史』에서 찾아보면, 그 시작 시점인 성종 2년은 거란의 고려 1차 침략 시기이며, 요 통화 29년(1011)에 요가 東京統軍使 소속 寧州觀察을 설치하고 고려를 정벌한 2차 침략 사실이 나타난다. 이 변화를 합리적으로 이해하면, 거란이 고려를 침략하던 1011년 이전까지 고려가 소유하고 있던 대륙 요동 소재 영주 안북대도호부를 2차 침략이 준비되던 이 시점의 국경 분쟁 과정에서 거란이 탈취하여 영주관찰을 설치해서 침략 전쟁을 수행하였고, 급기야 3차 침략이 이루어진 1018년에는 고려가 한반도 安州에 후방 방어기지를 설치하고 안북대도호부로 개칭한 것으로 읽힌다. 살수와 관련된 사료 선택의 문제에 대해서는 위에서 논의하였다.

강동 6주의 하나인 龜州에 대해서 구암은 서희의 여진 축출을 강조하고 있고, 당시 지명을 평안도 구성부로 비정하고 있다. 우선 지리 인식과 관련하여 귀주가 북계 안

북대도호부 영주의 관할 하에 있음을 주목해 두어야 한다.

그 연혁과 관련하여 당시 국경 분쟁의 당사자였던 거란의 기록인 『遼史』와 교차하여 분석하면 당시 실상에 보다 더 접근하는데 도움이 된다. 여러 정황을 고려할 때 고려의 龜州와 연관되는 거란 지명으로 음사한 歸州와 貴德州가 있다. 우선 歸州는 거란 태조(907 ~ 926) 때 歸州觀察을 설치하여 南女直 湯河司에 소속시켰고, 또 거란 태종(926 ~ 947) 때는 동경 요양부의 통현으로 귀덕주를 설치하였다. 거란의 1차 침입이 준비되던 시기이다. 1차 침입 시기 서희의 담판으로 강동 6주를 획득한 결과 성종 13년(994) 귀주에 성곽을 축조하였고, 목종 9년(1006)에 추가 축성이 이루어졌다. 거란은 2차 침입을 준비하며 통화 29년(1011)에 歸州觀察을 재설치하고, 동경도부서 소속 귀덕군을 건설하여, 드디어 고려 정벌에 돌입하고 귀덕주에서 전투를 벌였다. 이 시기까지 고려의 전방 귀주 국경 초소는 대륙 요동 동경 관할 하에 있었을 개연성이 크다. 고려는 이어진 제 3차 거란 침략 시기인 현종 9년(1018)에 龜州防禦使를 설치하는데, 이것은 잦은 거란 침입에 대비하여 평안도 구성군에 후방 방어 기지를 마련한 것으로 읽히며, 이를 바탕으로 이듬해 1019년에 귀주대첩이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다가 원나라 침입 시기인 고종 18년(1231)에 朴犀의 활약으로 定遠대도호부로 승격되고, 조선 세조 1년(1455)에 구성군으로 되었다.

다음 宣州에 대하여서도 구암의 언급에서는 몽고 침략 관련 기록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당시 지명을 평안도 선천군으로 비정하고 있다. 그런데, 선주도 북계 안북대도호부 영주의 관할 아래에 있다.

또 고려사와 요사를 교차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관련 지명은 宣州, 通州, 龍州가 서로 얹혀 있음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 지역은 고려사에서는 본래 안화군이며 고려 초에 통주로 개정하였다고 하였다. 요사에서는 본래 扶餘國 왕성이었고 발해에서 扶餘城이라고 하였으며, 거란 태조 대에 용주로 개명하고, 보령 7년(975)에 황룡부 반란인 연파 잔당을 이전시키고 용주 절도로 승격시켰다.

서희 강동 6주 확보 후 고려 성종 15년(996)에 선주에 축성하고, 목종 11년(1008)에 통주에 축성하자, 거란이 1012년에 6성의 반환을 요청하면서 개태 3년(1014) 선주 定遠軍刺史로 삼고 保州를 예속시켰으며, 성종이 통주로 개명하였다. 이 시점까지가 대략 요동 소재 시기로 볼 수 있다. 이런 국경 분쟁 와중에서 고려는 현종 21년(1033)에 후방방어기지인 선주방어사를 평안도 선천군에 설치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다음 龍州에 대해서 구암은 당시 지명을 용천군으로 비정하고 있다. 물론 용주도 북계 안북대도호부 영주 관할이다.

용주와 관련된 지명은 조선왕조 평안도 용천군과 용강현으로 얹혀 있어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 고려사와 요사와 송사와 동국여지승람에 대한 교차분석을 통해 그 변천 과정을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거란 龍州, 鐵州 지역은 원래 고구려 인근 黃龍國이었을 것이다. 고려 龍岡縣은 본래 黃龍城(軍岳)이었다. 발해 때 부여부, 부여성이었는데, 고려 태조 2년(919)에 용강현(군악)으로 개명하고 축성하였다. 거란 태조 말년(926)에 야율아보기가 발해를 치고

서 이 지역에 들어와 죽으니 황룡이 나타나므로(혹은 황룡을 쏘고) 황룡부로 고쳤다. 바로 이 시기에 鴨綠江(현 요하) 유역의 이 지역을 둘러싸고 고려와 거란이 각축하고 있던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

보령 7년(975) 7월 발해유민 연파의 반란으로 거란은 이 지역을 폐현으로 만들었다.

거란 1차 침입 이후, 거란과 고려는 鴨綠江을 경계로 서쪽은 거란, 동쪽은 고려로 국경을 삼을 것을 협상한 소손녕·서희의 담판으로 995년 고려 강동 6주의 하나가 되었다. 고려는 거란 용주를 접수하면서 용주 명칭도 그대로 받았던 것으로 보이며, 이 해 7월 연파가 철려를 공격하는 등 거란은 내란에 시달리고 있었다.

거란 2차 침입이 있는 1010년 이후 어느 시점에 고려는 이 지역을 잃고(강동 마지막 보루였던 保州를 상실한 것이 1014년이다), 현재의 평안북도 용강현으로 옮겨서 개명하고 후방방어사를 설치한 듯하다.

거란은 개태 9년(1020) 옛 현의 동북쪽에 다시 용주를 설치하였다.

고려는 끊임없이 옛 지역을 회복하려고 시도하였고(1018년 강감찬 귀주대첩, 황룡국 전설과 안시성 설치), 1029년 동경 대연림의 발해부흥운동, 1031년 거란 성종의 죽음 등의 정세 속에서 1033년 강동 6주의 시작점인 興化鎭을 기점으로 하여 連山鎭, 分水嶺, 哈達嶺으로 이어지는 북경관방을 설치하기에 이르렀다.

이 이후에도 고려와 거란의 국경 분쟁은 끊이지 않았고, 1084년 거란의 고려 변방 파수 지역은 鴨綠江 동쪽 언덕의 東京, 咸州, 黃龍府로 이어지는 선이었으며, 1117년 요가 금에 쫓겨 가며 보주성을 고려에 인계하면서 고려는 다시 국경선 鴨綠江 유역까지 회복하였다.

한편 안시성은 요사에서는 동경 요양부 철주에, 동국여지승람에서는 평안북도 용강현에 기록하고 있다. 아마 2차 침입 시 鴨綠江 동쪽의 강동 6주로 이웃했던 용주, 철주 사람들이 섞여 현 鴨綠江 동쪽 평안도 용강현으로 이주하면서 자연 지명을 가지고 왔을 것으로 보인다. 또 황룡부도부서사에 소속된 信州는 거란 성종이 2차 고려 침입 시기 이후 개태 연간 고려에 인접하였다고 하여 설치한 지역으로 이 주변 관련 지명이 대륙 요동에 소재하고 있음을 알려주는 주요한 지표가 된다.

다른 한편 본래 고려 안흥군이었던 용주에 대하여 『新增東國輿地勝覽』 평안도 용천군 형승 조항에 “강물은 渤澥에 연결되고 평야는 遼陽에 연접하였다”고 하여 대륙 요동과 관련된 기록을 남겨두고 있어 주목된다.

다음 靜州에 대하여 구암은 본래 고구려 송산현이라는 기록만 인용하고, 지금은 의주 경내에 소재한다고 비정하고 있다.

물론 정주도 안북대도호부 영주의 관할 지역이다. 『遼史』에서 松山州는 상경에서 170리 거리이며, 遼澤의 대부락이라고 하였다. 고려에서는 덕종 2년(1033) 8월 25일에 전방 국경 초소인 북경관방 설치 지역에 포함되었고, 2개월 후인 10월 25일에 거란이 이 지역으로 침입해 들어오자 10월 27일 靜州(방어)鎭을 설치하는데, 이것이 그것을 대비한 평안도 후방방어기지가 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다음 고려사의 麟州를 구암은 麟州로 표기하고, 지금 의주 경내에 소재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이어 덕종 조정에서의 북경관방 설치와 장성 축조 사실을 자세하게 부연하였다.

인주는 1010년 거란 2차 침략 시기 대륙 요동인 통주, 동산과 함께 거란군이 주둔하던 전방 국경 초소 지역이었다. 거란 3차 침략 시기인 1018년에 인주방어사를 설치하게 되는데, 이것이 평안도 의주 관내 소재 후방방어기지로 되었을 것이다. 이후 전방 국경, 후방 방어기지 체제들 유지하면서 1033년에 전방 국경 초소가 북경관방의 하나로 참여한 것으로 보인다.

다음 義州에 대하여 구암은 처음 거란이 압록강 동쪽 언덕에 보주를 설치하고 문종 때 거란이 궁구문을 설치하여 포주라고 하였으며, 예종 12년(1117)에 우리에게 귀속되어 압록강을 경계로 하여 관방을 설치하였다고 기록하고, 지금의 의주목이라고 비정하였다. 한편 고려사에서는 1117년에 개정하여 의주방어사로 삼고 관방을 복구하였다고 명시하여, 대륙 요동 소재인 이 지역이 이전에 고려의 전방 국경이었으며, 이 시점에서 평안도 의주에 후방방어기지를 설치하여 소속시킨 것으로 추론하게 한다. 말할 필요도 없이 의주도 고려 당시 안북대도호부 영주 관할임이었음도 동시에 고려해야 할 것이다.

이 점을 방증하듯 『遼史』에서는 보주 선의군 절도를 고려가 설치하였다고 하였고, 2차 침략 때 고려가 항복하자 개태 3년(1014)에 동경 통군사에 예속시켰다고 기록하였다.

이하 아래에서는 구암이 놓친 안북대도호부 영주 관할 대륙 요동 관련 『遼史』 기록과 연관되는 지명만을 살펴보기로 하자.

본래 고려 密雲郡이었던 延州와 관련하여서는 거란 태조(907 ~ 926) 시기 密雲縣이 설치되는데, 이 지역은 遼州의 통주인 祺州의 속현이다. 또 본래 고려 박릉군인 박주에는 1018년 고려-거란 3차전 때 거란이 동경통군사 소속 연주 덕창군 자사를 설치하자, 고려는 후방인 평안도에 연주방어사를 설치한 것으로 보인다.

또 본래 고려 신도군에는 거란 세종(947 ~ 951) 때 의무려산 동남쪽 소재 顯州의 통현으로 嘉州가 설치되었고, 고려 광종 11년(960)에 광종이 송성과 함께 빼앗아 濕忽에 축성하여 가주로 승격시켰다. 강동 6주의 하나인 郭州와 관련하여서는, 거란 2차 침입 시기인 1011년 거란에 의해 동경요양부 통현인 銅·霍·貴·寧州가 점령되는데, 여기서의 霍州는 郭州로 보인다. 또한 鐵州도 한나라의 安市縣이었고, 고구려의 安市城이었으며, 발해가 철주를 설치하였는데, 이는 거란의 建武軍자사였으며, 동경 서남 60리에 소재하였다. 또한 고려 강동 6주의 하나인 興化鎭은 거란 동경 요양부의 통주인 興州로, 동경 서남 300리에 소재하였다.

또 고려 順州는 거란 遼隊縣 지역이며, 橫帳南王府의 축성처로 顯州 동북 120리, 上京 동남 900리에 소재하고 있었다. 또 고려 渭州는 거란 高陽軍절도이며, 부마도위 소창에 책봉지였다.

또한 비류왕 松讓의 고도이고 고려 태조 때 剛德鎭에 축성한 成州에는 거란 1차

침입 시기 즈음 성종의 딸 진국장공주의 책봉지로 동일 명칭의 성주가 설치되는데, 宜州 북쪽 160리, 상경 남쪽 740리 지점에 소재한다고 하였다. 또 본래 고려 同昌郡 인 殷州에는 거란 1, 2차 침입 시기인 요 성종 연간에 成州 흥부군 절도의 통현으로 동창현이 설치되었다.

또 고려 肅州는 거란 1차 침입 이후 거란 肅州 信陵軍자사로 편입되었고, 1041년 이 지역 주민이 여진으로 도망가자 이를 재설치하여 北女直兵馬司에 예속시켰다. 이 지역은 『金國行程錄』에 의하면, 成州와 黃龍府 사이이다.

요컨대 구암이 고려 북계를 한반도 평안도로 한정시킨 근거로 제시한 『高麗史』, 『東國輿地勝覽』 기록을 『遼史』를 비롯한 관련 기록과 교차분석해 보면, 대륙 요동과 연관된 지역이 무수하게 등장한다. 이렇게 볼 때, 『東國地理誌』 직전의 지리서인 『東國輿地勝覽』에서조차 대륙 요동 관련 기록에 대하여 의문을 표시하면서 존치시킨 것과 대비되어, 동국 역사의 독자성을 지향한 현실적 문제 설정에도 불구하고 동국의 지리를 한반도로 국한하는 이중성을 가진 ‘동국독자사론’이란 문을 열고 말았음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켜 주고 있다.

Ⅲ. 한국 국경사에서의 위치

이상에서 필자의 한백겸 『東國地理誌』 역주를 바탕으로 그의 국경 인식을 검토하였다. 그것을 관통하는 기본 전제는 동국의 ‘남쪽은 남쪽대로, 북쪽은 북쪽대로(南自南, 北自北)’, 나아가 ‘동국은 동국대로(東國自東國)’로 요약되는 통칭 ‘東國獨自史論’으로 명명할 수 있었다. 그리고 그 지리적 경계는 대체로 대륙과 한반도로 설정되고 있었다. 그것은 이전 연구자들이 대부분 공감하듯이, 왜란이란 국난을 경험하고 호란을 앞두고 있던 당시 국가 위기 상황에 대한 성찰의 결과인 동국의 독자적인 정체성 확립이란 바람직한 문제 설정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런 지리적 한정은 도리어 그에 부합하는 기록만을 취사선택하고 대륙 요동 관련 기록은 무시하거나 한반도의 것으로 둔갑시키거나 예외적인 것으로 취급하는 이중적인 결과를 초래하였다. 그리고 그런 결과는 당시 그가 소속되어 있던 양반 집권층의 계급적 입장이 반영되었기 때문일 것이라고 추론하였다.

따라서 이전 연구자들의 ‘기존 문헌의 내용을 믿고 따르는 풍조를 비판하면서 객관적이고 실증적인 논리로 기존의 설을 분석하여 시비를 가리고자 했다’는 평가와는 상당한 거리가 있음이 확인되었다. 그것은 ‘述而不作’의 춘추사관과도 ‘실학’과도 무관한 것이었다.

그리고 그것은 후대 연구자들의 소모적인 논쟁의 문을 연 한계를 보였는데, 대표적인 것으로 한사군의 한반도설, 신라 통합 이후의 봉강의 향방, 고려 동계의 궤적, 고려 북계의 경과에 관한 것을 지적할 수 있었다.

신냉전으로 얼어붙어 있는 현재 한반도의 남북 국경은 구암의 사론과 소름끼치게 닮아 있고, 그것은 정치적 이념에 기반을 둔 계급적 이해관계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평화 시대를 지향하는 현대에서는 모순적 영역을 넘어 상보적 경계를 새롭게

모색하는 과제가 학자들에게 부여되고 있다. 그 책무를 방기하고 ‘유구한 역사와 광활한 만주 벌판’이란 터무니없는 이념적 매도로 ‘과학’을 표방하면서 실제로 경제적 이해관계와 정치권력에 연계되어 과거로 퇴행하고 있는 현실에 대한 성찰이 필요한 시점이다. 구암의 이 저술을 지금 다시 검토하는 역사적, 실천적 의미가 여기에 있다고 생각된다.

부록. 『東國地理誌』 역주(본문)

참고문헌

1. 사료

『高麗史』, 『東國兵鑑』, 『東國史略』, 『東國通鑑』, 『三國史記』, 『三國遺事』, 『世宗實錄地理志』, 『新增東國輿地勝覽』, 『東觀漢記』, 『文獻通考』, 『北史』, 『史記』, 『三國志』, 『山海經』, 『宋史』, 『新唐書』, 『遼史』, 『資治通鑑』, 『通典』, 『漢書』, 『翰苑』, 『後漢書』,

2. 논문

윤한택, 『고려국경에서 평화시대를 묻는다 - 고려 국경 연구』, (서울: 더 플랜, 2018)
윤한택, 『다산의 고려서북계 인식』, (서울, 경인문화사, 2018)
고영진, 한백겸, 『한국의 역사가와 역사학 상』, 창작과 비평사, (1994), p175~188
김경추, 한백겸의 동국지리지에 관한 연구, 국토지리학회지 37권 4호, (2003), p399~407
방동인, 구암 한백겸의 실학사상, 운곡학회연구논총1, 운곡학회, (2005), p51~74
원유한, 한백겸의 동국지리지 성립 배경과 성격, 국사관논총 93, 국사편찬위원회, (2000), p185~216
원유한, 한백겸의 동국지리지 성립 배경과 성격, 운곡학회연구논총 1, 운곡학회, (2005), p133~178,
윤희면, 「한백겸의 동국지리지」, 『역사학보』 93, 역사학회, (1982.3), p21~42
윤희면, 한백겸의 학문과 《동국지리지》 저술동기, 진단학보 제 63호, 진단학회, (1987), p153~169
이애희, 구암 한백겸의 실학사상, 강원문화연구 제 17집, 강원대학교 강원문화연구소, (1998), p71~87
이인철, 「고려 윤관이 개척한 동북9성의 위치 연구」, 『압록과 고려의 북계』, 2017, p83~121
정구복, 「한백겸의 동국지리지에 대한 일고 - 역사지리학파의 성립을 중심으로-」, 『전북사학』2, 전북대학교 사학회, (1978), p39~84
정구복, 한백겸의 사학과 그 영향, 진단학보 63호, (1987), p153~169
정종구, 구암 한백겸, 실학논총, 전남대학교 호남문화연구소, (1975), p311~317
조성을, 「『我邦疆域考』에 나타난 丁若鏞의 歷史認識」, 『奎章閣』15, (1992), p63~92
지금완, 한백겸의 『久菴遺稿』 역주,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4.12)

The position of Han Baek-gyeom's 『Dongguk Geography』 in Korean border history

Yoon, Han-Taek

If we examine his perception of borders based on the translation and annotation of Han Baek-Gyeom's 『Dongguk Geography』, the basic premise that runs through it is Dongguk's 'south is south, north is north (南自南, 北自北)', and further, can be named as 'Dongguk Self-History Theory(東國獨自史論)', which can be summarized as 'Dongguk is Dongguk (東國自東國)'. And its geographical boundaries are generally set as the continent and the Korean Peninsula. As most previous researchers agree, it seems to have originated from the setting of the desirable problem of establishing an independent identity for the country as a result of reflection on the national crisis situation at the time when the Japanese invasion was a national disaster and the Manchurian invasion(胡亂) was approaching. However, this geographical limitation resulted in the double result of selecting only records that corresponded to the records and ignoring, disguising them as belonging to the Korean Peninsula, or treating them as exceptions to records related to continental Liaodong. And that result may have been because it reflected the class position of the noble ruling class(兩班) to which he belonged at the time. Therefore, it was confirmed that there is a considerable distance from the evaluation of previous researchers, who 'criticized the trend of believing and following the contents of existing literature and attempted to determine right and wrong by analyzing existing theories with objective and empirical logic.' It is true that it opened the door to a new trend called historical geography, which was different from previous history books in form, but it had nothing to do with the 'Chunchu History view(春秋史觀)' of 'but Description not Creation(述而不作)' or 'Silhak(實學)'. And it showed limitations that opened the door to wasteful debate among later researchers. Representative examples include the 'opinion of Han' 4gun(漢四郡) in the Korean Peninsula, the direction of the territory after the unification of Silla Dynasty, the trajectory of the Goryeo Dynasty's northeastern region, and the progress of the Goryeo Dynasty's northern region.

[Key Words]

Dongguk independent history theory, historical geography, Chunchu History view(春秋史觀), Silhak(實學)